

유아의 인지 양태 발달에 관한 종적 연구

장경희* · 김태경** · 박섯별(한양대)

〈목 차〉

1. 서론
2. ‘-겠-’의 출현과 사용 맥락
3. ‘-네-’의 출현과 사용 맥락
4. ‘-더-’의 출현과 사용 맥락
5. ‘-지-’의 출현과 사용 맥락
6. ‘-구나-’의 출현과 사용 맥락
7. 결론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한국 유아의 언어 발달 가운데 양태 범주 발달을 살펴보고 한다.¹⁾ 양태 범주에는 전통적으로 진리 양태, 인식 양태, 행위 양태 등이 포함되어 왔는데,²⁾ 양태 범주 전체를 다루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어서 이 논문

* 주저자 ** 교신저자

1)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장경희 1985: 9),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의미 영역’(고영근 1986), ‘상황에 대한 화자의 평가’(이효상 1991: 1), ‘명제의 사실성을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문법 범주’(장경희 1998: 266),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박재현 2004: 31)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이 밖에도 양태 범주는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 등으로 하위분류되기

에서는 우선 인식 양태에 한정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국어의 인식 양태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겠-’, ‘-네’, ‘-더-’, ‘-구나’, ‘-지’ 등의 양태소를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국어의 양태소 습득 과정은 주로 어미 습득에 관한 연구에 포함시켜 다루어져 왔고, 양태에 한정하여 그 발달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인섭(1986)에서는 접속문의 발달과 관련하여 양태소 일부를 다루었고, 조숙환(1997)에서도 아동의 의미나 화용, 문장 구조 발달 측면에서 양태와 시제 어미 등의 발달을 다루었다. 그리고 동사 굴절 또는 종결어미 등과 관련하여 양태의 사용 시기를 다루기도 하였다(조명한, 1982; Choi, 1991; Lee, 1994 등).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식 양태 발달에 대하여 양태소의 초출 시기와 사용 맥락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먼저, 각 양태소별로 처음 사용된 시기를 관찰하여 양태의 습득 시기를 논의한다. 언어 발달에서는 관찰하고자 하는 언어 표현의 첫 출현 시점이 발달 순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별로 각 양태소의 초출 시기와 월령별 출현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양태소별 습득 순서와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양태소 출현 시기에 대한 관찰에 이어, 아동의 양태 표현을 그 사용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의 양태소는 대부분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지닌다. ‘-지’가 기지 진술로 해석되기도 하고 주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유아의 초기 양태소 사용 맥락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후기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유아의 양태 습득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연령별 대화 말뭉치>³⁾ 가운데 일부이다. 연구 방법은 만2세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한 종적 관찰 방법을 취하였으며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도 한다(임동훈 2008: 221-229).

- 3) 이 말뭉치는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과제 <한국인의 의사소통능력 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074-AMI055)>를 통해 구축한 것이다.
- 4) 대규모 표본을 통한 횡적 연구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목표한 언어 자료만을 수집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대량 표본 연구는 이와 같이 발달의 규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한 아동에게서 약 50-100발화 정도로 제한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이에 비해,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관찰하는 종적 연구는 한 아동에게서 얻는

1) 일정한 기준(월령, 성별 등)에 따라 대상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조사 시작 시점에 생후 24~25개월에 속하고 정상 발달을 보이며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상 아동 4명 가운데 2명이 남아, 2명이 여아로 구성되었다. 대상 아동의 부모는 대졸 이상 학력의 표준어 사용자이다.

2) 대상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발화를 1년에 걸쳐 수집하였다.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일상적인 패턴으로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녹음을 위탁받은 부모는 매회 녹음이 끝난 직후에 녹음 날짜와 녹음 상황, 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 등을 녹음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 및 횟수는 1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1회 60분씩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⁵⁾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의 성별과 월령별 자료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피험 아동의 성별과 월령별 자료 분포

대상자(성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합
YB(여)	3	4	3	4	3	4	4	3	3	4	2	2	39
TY(남)	2	4	4	4	3	2	2	3	3	3	2	3	35
MK(남)	5	4	5	4	4	5	4	4	5				40
EB(여)		3	2	4	4	2	2	3	3	4	4	6	37
합	10	15	14	16	14	13	12	13	14	11	8	11	151

3) 수집한 녹음 자료는 모두 3차에 걸쳐 각각의 전사지침⁶⁾에 따라 한글로 전사되었다. 1차 전사는 발화자 표시와 발화 내용으로 이루어진 원시 전사 형태이며, 2차 전사는 1차 전사 결과물의 수정 보완 및 화자의 연령, 성별, 소속,

표본의 수가 방대한 만큼, 대규모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1~2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종적 연구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대상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박경자 1995).

5)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발화 수집의 특성상 아동 개인의 사정에 의해 녹음 시기가 1-2주 뒤로 미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전사 기호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화자 간 관계 등 피험자 관련 정보와 녹음 시간, 날짜, 전사 분량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헤더, 말걸침이나 군말, 비언어적 음성, 휴지(休止) 등 발화 상황 관련 정보 표시로 이루어졌다. 3차 전사는 2차 전사 결과물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익명 처리 등을 위한 상세 정보 태그로 이루어졌다.

4)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 양태소의 초출 시기 및 사용 빈도, 사용 맥락에 따른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양태소가 나타난 발화에 태그를 부착하고, 태그가 부착된 발화를 엑셀로 옮겨 하위 의미 분류 및 빈도 계산을 하였다. 이때 노래 가사에 포함된 형태, 동화 책에 나온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겠-'의 출현과 사용 맥락

2.1. '-겠-'의 출현 시기

'-겠-'의 사용은 관찰 대상이 된 네 명의 아동 가운데 여아인 YB와 EB 두 명에게서만 나타났다. YB는 만25개월에 첫 사용을 보였고, EB는 이보다 3개월 늦은 만28개월에 첫 사용을 보였다.⁷⁾

'-겠-'을 사용하는 두 아동은 양태소 '-겠-'을 단순히 모방했거나 우연히 사용했다기보다 습득의 단계에 들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명의 아동들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의 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아동의 '-겠-'의 사용

기호	설 명
?	상승 억양
!	활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
,	약한 상승 또는 하강, 약간의 휴지 등
.	하강 억양
((-))	잘 들리지 않는 발화
[말 걸침
-	의도적인 정음
< >	비언어적 음성(기침, 웃음 등)
()	비표준 발화어의 표준어형
{ }	대화 상황 설명
~	군말 표시

7) 4명의 아동 가운데 '-겠-'의 사용을 보인 두 아동이 모두 여아인 점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언어 발달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약간 앞서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빈도와 파일별 평균 사용 빈도를 참조하여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 ‘-졌-’의 출현 빈도⁸⁾

월령	YB			EB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24	3	0	0.0			
25	4	4	1.0	3	0	0.0
26	3	0	0.0	2	0	0.0
27	4	5	1.3	4	0	0.0
28	3	7	2.3	4	3	0.8
29	4	6	1.5	2	0	0.0
30	4	4	1.0	2	0	0.0
31	3	3	1.0	3	0	0.0
32	3	3	1.0	3	1	0.3
33	4	3	0.8	4	2	0.5
34	2	2	1.0	4	2	0.5
35	2	1	0.5	6	1	0.2

〈표 2〉에 보인 것과 같이 YB의 발화 자료에서는 만25개월에 ‘-졌-’이 처음 출현한 이후 만26개월을 제외한 모든 월령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출현 빈도는 한 회 녹음 자료에서 평균 1회 정도 출현하였고 이러한 출현 빈도는 관찰 기간 내에서 월령에 따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EB의 경우는 관찰 6 달째인 만28개월에 이르러서 ‘-졌-’ 첫 사용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다시 석 달 동안 ‘-졌-’이 사용되지 않다가 만32개월부터 2-3회 녹음에 한 번꼴로 ‘-졌-’이 사용되었다. YB와 EB가 ‘-졌-’의 일정한 사용 빈도를 보여 주고 있어 이들 아동은 이 시기에 ‘-졌-’이 습득된 상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졌-’의 습득은 이 시기 아동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다. YB와 EB 두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자료에서는 ‘-졌-’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두 명의 아동에서도 비교적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

8) 월별 녹음 파일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월별 총출현빈도와 한 파일 당 평균 출현 빈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하 동일함.

기 때문이다.

2.2. ‘-겠-’의 사용 맥락

‘-겠-’은 ‘사유 양태’(장경희 1995: 201-202, 1998: 285), ‘추측 양태’(임동훈 2008: 237)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맥락에 따라서 추측, 의지, 의견, 가능성, 공손성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겠-’의 사용맥락은 크게 보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표명하는 맥락과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맥락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아동들의 ‘-겠-’의 습득은 양태소가 사용되는 맥락에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겠-’을 습득 과정을 이러한 사용 맥락과 관련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언어 습득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본다. ‘-겠-’은 두 아동(YB와 EB)의 언어에서 관찰되는데, 이들 맥락을 정리해보면, ‘-겠-’이 모두 ‘생각’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고, ‘의도’ 표명의 예들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겠-’의 실제 사용 맥락을 보인 것이다.

- | | |
|-----------------------|------------|
| (1) ㄱ. 엄마 여기 앉으면 되겠다. | (YB; 28개월) |
| 아빠 죽겠더(죽겠어). | (YB; 27개월) |
| 어, 알겠더(알겠어). | (YB; 35개월) |
| ㄴ. 지저분해, 모요(목욕) 해야겠다. | (EB; 28개월) |
| 이렇게 하면 되겠다. | (EB; 34개월) |

(1)에서 보이듯이 유아들의 발화에서 ‘-겠-’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겠-’의 사용맥락 가운데 하나인 ‘의도’를 표시하는 발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 결과,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의도’를 표명하는 맥락에서 ‘-겠-’ 대신 ‘-르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9) ‘-르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으며, 네 명의 아동 모두에게서 볼 수 있었다. ‘-르래’는 자신의 의도를 표명하거나 청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 간접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유아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르래’의 예를 보인 것이다.

바나나 그양(그냥) 먹올래. (YB; 24개월)
엄마 뽀뽀(빌딩) 안 할래. (TY; 31개월)
나 할래. (MK; 32개월)

요컨대, 아동은 양태소 ‘-겠-’을 주로 ‘생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겠’의 사용 맥락 가운데 하나인 ‘의도’를 나타내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성인에 비해 ‘-겠-’의 사용 맥락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을 ‘-르래’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네’의 출현과 사용 맥락

3.1. ‘-네’의 출현 시기

양태소 ‘-네’는 대상 아동 4명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YB와 EB의 경우, ‘-네’의 초출 시기는 각각 관찰이 시작된 만24개월과 만25개월이었고, TY와 MK는 각각 만30개월과 만32개월에 ‘-네’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네’의 출현 시기에서 YB와 EB가 TY나 MK보다 선행하고 있는 점은 ‘-겠-’의 출현 양상과 동일하다.¹⁰⁾

‘-네’의 습득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인섭(1986)에서는 생후 2년3개월(만27개월) 여아에게서 ‘-네’의 사용이 관찰되었고, 이정민(1997)에서는 아동 3명에 대한 부모 기록 일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각각 만21개월, 만23개월, 만14개월에 ‘-네’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네’의 사용 빈도를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네’의 출현 빈도

월령	YB			TY			MK			EB		
	파일 수	빈도	평균									
24	3	15	5.0	2	0	0.0	5	0	0.0			
25	4	10	2.5	4	0	0.0	4	0	0.0	3	6	2.0

책 볼래. (EB; 27개월)
 엄마 고만(그만)먹으래(먹을래)? (YB; 29개월)
 엄마는 ((소바따))가 대예(될래)? (EB; 33개월)
 우이(우리) 안칭(아이스크림) 먹을래? (YB; 28개월)

10) 2.1에서 살펴본 ‘-겠-’의 출현에서도 YB와 EB가 다른 두 아동에 비해 빠른 발달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월령	YB			TY			MK			EB		
	파일 수	빈도	평균									
26	3	14	4.7	4	0	0.0	5	0	0.0	2	13	6.5
27	4	5	1.3	4	0	0.0	4	0	0.0	4	25	6.3
28	3	18	6.0	3	0	0.0	4	0	0.0	4	12	3.0
29	4	14	3.5	2	0	0.0	5	0	0.0	2	2	1.0
30	4	18	4.5	2	4	2.0	4	0	0.0	2	2	1.0
31	3	27	9.0	3	3	1.0	4	0	0.0	3	15	5.0
32	3	10	3.3	3	7	2.3	5	16	3.2	3	10	3.3
33	4	21	5.3	3	5	1.7				4	23	5.8
34	2	7	3.5	2	2	1.0				4	6	1.5
35	2	14	7.0	3	7	2.3				6	6	1.0

<표 3>을 보면, YB와 EB 언어에서는 만24개월과 만25개월 때부터 각각 평균 5회와 2회씩 ‘-네’가 관찰된다. ‘-네’의 출현 빈도는 월령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는 했지만, 평균 1회 이상으로 ‘-네’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YB와 EB가 관찰 초기부터 ‘-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볼 때, 이 두 아동이 관찰 이전 시기부터 ‘-네’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TY의 경우는 관찰 구간의 중반까지는 ‘-네’가 보이지 않다가 만30개월에 처음으로 평균 2회의 사용을 보이고, 그 이후 평균 1회 이상 ‘-네’가 관찰된다. MK의 경우는 만31개월까지 ‘-네’가 전혀 출현하지 않다가 만32개월에 이르러서 갑자기 높은 빈도(16회, 평균 3.2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YB와 EB 수준이다.

이러한 ‘-네’의 출현 양상을 앞에서 논의한 ‘-짚-’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네’는 초출 시기가 ‘-짚-’보다는 이르고 출현 빈도도 높다.

3.2. ‘-네’의 사용 맥락

‘-네’의 기본 의미는 주로 ‘현재 지각’(장경희 1985: 80-83, 박재연 2004: 164-168)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Lee(1991: 403-413)에서는 ‘-네’가 ‘지각 시점

에서 그것이 사실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이들 논의에 의하면 '-네'는 '지각'을 핵심 자질로 지닌다고 본다. 지각 양태는 '명제 내용이 감각을 통한 앎임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이다. 인간의 지각 활동은 사물의 존재·범주·속성, 사건이나 사태의 발생 및 진행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아동의 언어 발달을 개관해 볼 때, 지각의 의미를 지닌 '-네'의 용법은 사물에 관한 지각과 사태 지각으로 대별하여 관찰해볼 수 있다.

4명의 아동 가운데 빠른 언어 발달을 보이는 YB와 EB의 언어에서는 두 유형의 용법이 모두 관찰된다.

- | | |
|-----------------------|------------|
| (2) ㄱ. ((-)) 없네? | (EB; 25개월) |
| ㄴ. 오빠 안가(가방) 매네? | (EB; 25개월) |
| 아추 아추 ㄸ= ((끝났네)). | (EB; 25개월) |
| 00이 가네? | (EB; 25개월) |
| (3) ㄱ. 00이 공 있네-? | (YB; 24개월) |
| 어디 보자-, 책- 책에- 사과가있네? | (YB; 24개월) |
| ㄴ. 떨어졌네. | (YB; 24개월) |
| 어? 똑같이 받았네. | (YB; 24개월) |
| 멀리두 굴러갔네. | (YB; 24개월) |

(2)는 EB의 만25개월에 발화된 자료이다. (2ㄱ)은 사물의 존재 지각 발화에 '-네'가 쓰인 예이고, (2ㄴ)에서는 사물의 움직임 등의 사태 지각 발화에 쓰였다. EB는 이와 같이 초기부터 두 가지 맥락에 '-네'가 사용되고 있다. (3)의 자료를 보면 YB도 만24개월부터 두 가지 명제 내용에 '-네'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찰 초기부터 '-네'의 활발한 사용을 보인 YB와 EB의 경우는 '-네'를 '사물 지각'과 '사태 지각'의 두 맥락에서 고루 쓰고 있다. EB와 YB가 관찰 초기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용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양태소 '-네'의 습득이 이미 본 연구에서 수행된 관찰 이전 단계에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네'의 사용 맥락상의 특징은, '없다, 이다,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사물의 존재나 범주에 관한 지각'을 드러내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사물의 존재나 범주에 대한 지각, 즉 사물 지각의 용법이 성인에 비해 빈번함

을 볼 수 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태가 모두 동등하게 유아에게 인식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돌 무렵의 유아들은 성인들과 달리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범주를 확인하거나 사물을 유형화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네’의 용법에 사물 지각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아동의 지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만30개월과 만32개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양태소 ‘-네’가 관찰된 TY와 MK의 언어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 | | |
|----------------|------------|
| (4) 안네(없네)? | (TY; 30개월) |
| ((으)) 없네. | (TY; 30개월) |
| ((땅아지))네. | (TY; 30개월) |
| (5) ((-)) 있네-. | (MK; 32개월) |
| 엄마 여깁네? | (MK; 32개월) |
| 엄마 있네? | (MK; 32개월) |
| 아빠-, 있네. | (MK; 32개월) |

(4)는 TY 언어에서는 모두 ‘사물 존재 지각’ 맥락에서 ‘-네’가 사용되고 있다. 11) (5)의 MK의 언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MK는 네 명의 아동 가운데 가장 늦게 ‘-네’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만32개월에서야 초출 형태를 보였는데, (5)에 보인 것처럼 모두 ‘사물의 존재 지각’ 맥락에서 ‘-네’가 쓰였다.

이상과 같이, 유아는 ‘-네’를 습득할 때, ‘사태 지각’보다는 ‘사물 지각’의 맥락에서 먼저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존재 확인이나 범주 확인 등의 발화는 성인들의 담화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발화인데, 유아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네’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의 사물에 대한 지각활동이 활발한 유아의 인지 발달 시기와 상관되는, 유아 언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1) 사태 지각 맥락에서는 1개월 후인 만31개월에 이르러 그 쓰임을 볼 수 있다. (“아씨(아저씨) 어디 갔네.”)(TY; 31개월)

4. '-더-'의 출현과 사용 맥락

4.1. '-더-'의 출현 시기

양태소 '-더-'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의 아동만이 사용하고 있다. '-더-'의 사용을 보인 아동은 YB로, 양태소 '-겠-'의 경우에도 네 명 가운데 가장 빠른 사용을 보인 아동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더-'의 습득이 상당히 발달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YB 언어에서도 '-더-' 사용 빈도는 별로 높지 않았다. YB의 월령별 사용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더-'의 출현 빈도

월령	YB		
	파일 수	빈도	평균
24	3	0	0.0
25	4	0	0.0
26	3	0	0.0
27	4	2	0.5
28	3	1	0.3
29	4	0	0.0
30	4	1	0.3
31	3	0	0.0
32	3	0	0.0
33	4	1	0.3
34	2	0	0.0
35	2	1	0.5

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일하게 '-더-'를 사용하고 있는 YB 언어에서도 만27개월에 처음으로 관찰되고 있다. YB 언어에서 양태소 '-겠-'이 만25개월 시기부터 사용된 것에 견주어볼 때 다소 늦은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겠-'이 매회 녹음 자료에서 평균 1회 정도로 꾸준히 나타난 데 비해 '-더-'의 출현 빈도는 0.5 이하로 낮으며 출현 여

부도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지각 양태 가운데 과거 지각의 ‘-더-’는 현재 지각의 ‘-네-’에 비해 출현 시기도 늦고 사용 빈도도 낮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지각을 나타내는 ‘-네-’는 이른 시기부터 4명의 아동 모두 사용되었고 그 쓰임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지각의 ‘-더-’는 대상 아동 가운데 한 명의 아동에서만 관찰되었고 1년 동안 4회 관찰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형태소의 발달 순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양태의 발달이, 언어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그러하듯이, 유아의 인지 발달과 상관성을 지닌 데서 비롯된 사실로 보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많은 사물과 많은 일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유아는 우선 현재 이루어지는 지각 정보 중심으로의 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더-’의 사용 맥락

‘-더-’는 ‘과거 지각 양태’(장경희 1983, 1985: 65, 박재연 2004: 111), ‘증거 양태’(Lee 1991: 281-326, 송재목 1998, 임동훈 2008)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각의 양태의 관점에 따르면, ‘-더-’의 과거지각으로, ‘-네-’는 현재지각으로 구분된다.

앞선 ‘-네-’의 논의에서 우리는 사물의 존재 여부나 사물의 범주 확인 등의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 이와 다르게, ‘-더-’의 경우는 사물의 존재 지각이나 범주 확인 등의 용법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더-’는 사물의 속성이나 사태의 지각을 말하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더-’의 사용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엄마: 까마귀가-, 커튼 속에 들어가서-,

유아: 어제는 딱았었는데(작았었는데)?

엄마: 응. (책장을 넘김)

유아: 어제는 쿠더라(크더라).

엄마: 어. 이렇게 커튼을 덮으니까 큰 것처럼 보였구나?

(YB; 30개월)

(7) 오빠가 예쁜 동그아민데(동그라미인데) 빨간택이더라(빨간색이더라).

(YB; 33개월)

(8) 여기는 안 아프드야(아프더라).

(YB; 27개월)

(6)에서 유아는 책의 그림을 보며 ‘어제’라는 과거시제 부사와 양태 ‘-더-’를 사용하여 ‘까마귀가 가진 ‘크다’는 속성을 과거 시점에 지각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7-8)에서도 ‘-더-’는 ‘동그라미가 빨강다’는 사물의 속성, ‘여기가 아프지 않았다’는 사태를 과거에 지각했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아의 지각양태는 ‘-네’의 경우, 사물의 존재 지각 용법이 두드러지고 ‘-더-’의 쓰임에서는 사태 지각 용법이 두드러진다.

5. ‘-지’의 출현과 사용 맥락

5.1. ‘-지’의 출현 시기

양태소 ‘-지’는 4명의 대상 아동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YB는 관찰이 시작된 만24개월부터, EB 언어에서는 관찰이 시작된 지 1개월 후인 만26개월부터 ‘-지’의 용법을 볼 수 있었다. TY와 MK는 초기 6개월 동안 ‘-지’를 사용하지 않다가 관찰 7개월째인 만30개월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지’는 모든 아동에게서 이른 시기부터 관찰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찍 습득되는 양태소로 보인다. 이인섭(1986: 255)에서도 만27개월의 아동 언어에서 ‘-지’의 출현이 보고된 바 있다.

월령별 출현 빈도를 통해서도 양태소 ‘-지’의 습득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표 5〉 ‘-지’의 출현 빈도

월령	YB			TY			MK			EB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24	3	17	5.7	2	0	0.0	5	0	0.0			
25	4	41	10.3	4	0	0.0	4	0	0.0	3	0	0.0
26	3	22	7.3	4	0	0.0	5	0	0.0	2	3	1.5
27	4	24	6.0	4	0	0.0	4	0	0.0	4	8	2.0

월령	YB			TY			MK			EB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28	3	32	10.7	3	0	0.0	4	0	0.0	4	27	6.8
29	4	37	9.3	2	0	0.0	5	0	0.0	2	5	2.5
30	4	40	10.0	2	1	0.5	4	6	1.5	2	5	2.5
31	3	57	19.0	3	5	1.7	4	3	0.8	3	11	3.7
32	3	35	11.7	3	1	0.3	5	3	0.6	3	29	9.7
33	4	77	19.3	3	4	1.3				4	31	7.8
34	2	51	25.5	2	18	9.0				4	20	5.0
35	2	34	17.0	3	18	6.0				6	26	4.3

‘-지’의 출현 빈도는 다섯 가지 양태소 가운데 가장 높다. YB는 만24개월부터 평균 5.7회의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만30개월 이후에는 평균 10회 이상의 사용되고 있다. TY의 경우는 ‘-지’가 처음 출현한 만30개월에는 평균 0.5회 사용에 그쳤으나 만34개월과 만35개월에는 각각 평균 9회와 평균 6회로 사용되고 있다. MK의 경우에는 만30개월에 평균 1.5회 사용하였고, 이후 2개월 동안에 각각 0.8회와 0.6회를 사용하여 사용 빈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EB는 ‘-지’가 처음 출현한 만26개월의 평균 1.5회 사용되었고, 만28개월에는 평균 6.8회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이와 같이 ‘-지’는 양태소 가운데 비교적 일찍 출현하며,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5.2. ‘-지’의 사용 맥락

‘-지’의 의미 자질은 ‘이미 앎’(장경희 1985: 110-116), ‘화자의 정보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Lee 1991: 438) 등으로 파악된다. 박재연(2004: 147-150)에서는 ‘이미 앎’의 자질 이외에도 ‘既知 假定’ 등의 자질을 분석하였다. 양태소 ‘-지’는 종결 형태로 쓰이고 유아 언어에서도 그 출현이 빈번하여, 유아의 ‘-지’의 의 용법은 문장 유형 및 기능과 관련하여 관찰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언어에서는 진술문에 쓰인 ‘-지’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지 진술’의 맥락에서 주로 쓰이고, 의문문의 경우는 ‘확인 질문’의 맥락

에서 먼저 관찰된다.

- (9) ㄱ. 공 ((-) 있지. (YB; 24개월)
 ㄴ. 00이 붕붕이, 방에 있지-? (YB; 24개월)
 이거는 파랑 꽃이지? (YB; 24개월)
 이렇게 <웃음/히히> 00이도 밖에 나갔지? (YB; 24개월)
- (10) ㄱ. 어, 엄마 가지? (TY; 31개월)
 ㄴ. 어 맞-지, 으! (TY; 30개월)
 아빠 담마찌(닭았지). (TY; 31개월)
- (11) 음-, 똑같지? (MK; 30개월)
- (12) ㄱ. 아빠 꺼-지(것이지). (EB; 26개월)
 트억아찌요-(트럭이었지요). (EB; 26개월)
 ㄴ. 이거 오빠야 오빠야. 00이지? (EB; 27개월)

위에서 (9)는 YB, (10)은 TY, (11)은 MK, (12)는 EB의 자료에 나타난 ‘-지’의 초출 형태를 보인 것이다. 위에 보인 예와 같이 ‘-지’는 사용 초기에는 주로 자신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자신이 지닌 정보가 사실임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9ㄱ), (12ㄱ)은 ‘기지 진술’에 해당하고 (9ㄴ), (10ㄱ,ㄴ), (11), (12ㄴ)은 ‘확인 질문’에 해당한다. MK의 언어에서는 ‘기지 진술’ 맥락에서는 ‘-지’가 보이지 않고, ‘확인 질문’의 맥락에서만 관찰된다.

유아 언어에서도 수사의문이나 자문의 경우에 양태소 ‘-지’가 관찰된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수사의문에 사용된 ‘-잖(-지 않-)’은, 상대방의 주장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고, 자문에 사용된 ‘-지’는 의문사를 지닌 설명의문문의 형태로 쓰여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수사 의문이나 자문의 맥락에 쓰인 ‘-지’는 기지 진술이나 확인 질문 경우보다는 늦은 시기에 관찰된다.

MK를 제외한 나머지 세명 아동 언어에서 수사의문과 자문의 ‘-지’가 관찰된다.

- (13) ㄱ. 여기 ((-)) 있잖아. (YB; 24개월)
 ㄴ. <웃음/히히> 어어? 공이 어디 갔지? (YB; 24개월)
- (14) ㄱ. 아니-다, 책(책) 보구 있잖아-. (EB; 27개월)
 ㄴ. 어특하지(어떡하지)? (EB; 28개월)
 이게 뭐지? (EB; 28개월)
- (15) ㄱ. 양겨(안경) 모자, 아니-, 있잖아-. (TY; 34개월)
 ㄴ. 어뎠지? (TY; 35개월)

(13ㄱ)의 수사의문으로 ‘주장’을 나타내는 용법은, ‘기지 진술’과 ‘확인 질문’의 ‘-지’의 관찰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관찰되었다. (13ㄱ)과 같은 ‘주장’의 맥락에서 쓰이는 ‘-지’는 초기에는 보기 어렵지만, 관찰 후기로 가면서 사용이 빈번해지고 전체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13ㄴ)은 자문의 경우인데 (13ㄱ)과 동일한 날에 관찰되었다. (13ㄴ)과 같은 자문은 관찰 후기에도 많지 않아서 ‘-지’의 네 가지 쓰임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EB는 만26개월에 ‘-지’를 처음 사용하였고 사용 초기 1개월 동안에는 ‘기지 진술’과 ‘확인 질문’에 맥락에서만 ‘-지’를 사용하다가 만27개월에 (14ㄱ)에 보인 바와 같이 ‘주장’의 맥락에서 ‘-지’를 사용하였다. 자문’은 이보다 1개월 늦은 만28개월에 관찰된다. 자문만을 보면 EB는 다른 아동에 비해 ‘자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EB의 ‘-지’의 쓰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지 진술’과 ‘자문’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만30개월에 ‘-지’가 처음 관찰된 TY의 언어에서는 초기에는 ‘기지 진술’과 ‘확인 질문’ 맥락에서만 ‘-지’를 볼 수 있고, (15ㄱ)와 같이 ‘주장’의 맥락에서 쓰인 ‘-지’는 만34개월에 처음으로 관찰되었다. 자문에 사용된 ‘-지’는 (15ㄴ)에 제시한 것처럼 만35개월에 단 1회 관찰되었다.

6. ‘-구나’의 출현과 사용 맥락

6.1. ‘-구나’의 출현 시기

양태소 ‘-구나’는 MK를 제외한 세 명의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다. ‘-구나’의 가장 이른 출현은 YB의 만26개월 자료에서 관찰되었고, 다음으로 TY는 만30

개월에, EB는 만31개월에 처음으로 ‘-구나’를 사용하였다. MK는 관찰구간 내 내 ‘-구나’를 1회도 사용하지 않았다. ‘-구나’는 출현 시기는 다른 양태소에 비해 늦지 않은 편이지만, 그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MK를 제외한 세 아동의 월령별 ‘-구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6〉 ‘-구나’의 출현 빈도

월령	YB			TY			EB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파일 수	빈도	평균
24	3	0	0.0	2	0	0.0			
25	4	0	0.0	4	0	0.0	3	0	0.0
26	3	1	0.3	4	0	0.0	2	0	0.0
27	4	0	0.0	4	0	0.0	4	0	0.0
28	3	0	0.0	3	0	0.0	4	0	0.0
29	4	2	0.5	2	0	0.0	2	0	0.0
30	4	1	0.3	2	1	0.5	2	0	0.0
31	3	0	0.0	3	1	0.3	3	1	0.3
32	3	0	0.0	3	0	0.0	3	0	0.0
33	4	0	0.0	3	0	0.0	4	1	0.3
34	2	3	1.5	2	0	0.0	4	0	0.0
35	2	0	0.0	3	1	0.3	6	4	0.7

〈표 6〉를 보면, YB 언어에서는 만24개월과 만25개월까지는 ‘-구나’가 관찰되지 않았고, 만26개월에 한 번 사용하였고 다음 사용은 만29개월에 2회 사용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약 3개월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구나’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YB 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나’의 초출 시기는 만26개월이지만 관찰 시작 시점인 24개월 이전에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TY의 경우 관찰 초기 6개월 동안은 ‘-구나’가 출현하지 않다가 만30개월에 처음으로 1회 출현하고 이어서 만31개월과 만35개월에 각각 1회씩 출현하였다. ‘-구나’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은 YB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초기 6개

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아동이 앞의 양태소 발달에서도 다소 느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만30개월에 출현한 것을 초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B도 관찰 초기 6개월 동안 ‘-구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EB의 언어에서는 ‘-구나’의 첫 출현이 만31개월에 관찰되었고, 만32개월에는 사용이 관찰되지 않다가 다시 만33개월에 1회 사용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구나’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양태소 ‘-구나’가 쓰여야 하는 맥락이 드물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성인 언어에서도 ‘-구나’의 사용 빈도는 다른 양태소들에 비하여 훨씬 낮다.¹²⁾ 따라서 유아 언어에서 ‘-구나’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은, 유아도 ‘-구나’의 경우는 성인의 언어와 비슷한 사용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¹³⁾

6.2. ‘-구나’의 사용 맥락

‘-구나’는 ‘처음 앎’(장경희 1985: 101-103)을 그 본질적 의미로 파악하기도 하고, ‘처음 앎’ 이외에 ‘정보의 내면화 정도’(Lee: 1991: 382-402)를 포함하거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보의 획득 방법’(박재연 2004: 168-172)까지를 그 의미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처음 앎’을 핵심으로 삼고, 정보 획득의 방법이나 내면화 정도의 차이가 맥락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즉, ‘-구나’는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 등 감각을 통해 새롭게 얻어진 앎을 나타내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알게 될 때와 같이 언어 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앎을 나타내는 경우, 관찰이나 언어 정보 이외에 추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앎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실험적 조작을 통한 새로운 앎을 드러내는 경우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12) 국립국어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구어 자료에서 ‘-구나’가 사용된 빈도는 23회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자료에서 조사된 다른 형태들의 사용 빈도(가령, ‘-지’의 경우는 469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빈도이다.

13) 이정민(1997)에서는 만23개월에 ‘-구나’의 출현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반면, 이인섭(1986: 255-258)에서는 만27개월의 아동에게서 ‘-구나’가 사용되지 않았고, 만38개월의 아동에게서 ‘-구나’가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와 같이 ‘-구나’의 출현 시기가 다르게 보고된 것도 ‘-구나’가 저빈도 어휘인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구나’는 전반적으로 출현 횟수가 많지 않은데, ‘-구나’의 쓰임을 분석하면 아동들은 대부분 ‘감각적 관찰에 의한 새로운 앎’을 나타내고 있다.

(16) 아- 부뿌이(뽕뽕이) 자동차 여깁구나, 여기. (YB; 26개월)

(17) 집도 있구나. (TY; 30개월)

(18) 곤룡이(공룡이) 다 모여구나(모였구나)? (EB; 31개월)

(16-18)은 모두 감각적 관찰에 의한 새로운 앎을 나타낸다. (16)은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17)은 여러 가지 장난감 중에서 집 모양의 장난감을 보면서, (18)은 공룡 모양의 장난감을 보면서 말한 것이다. 즉, (16-18)의 ‘-구나’는 모두 시각을 통한 관찰 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앎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언어 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앎’의 맥락에서 ‘-구나’를 사용한 것은 한 명의 아동(YB)뿐이다.

(19) 유아: 엄마 밥 안 먹는데 물 먹어.

엄마: 엄마 아까 밥 먹었어.

유아: 기렸구나(그랬구나)-, 난 몰랐지. (YB; 34개월)

(19)의 ‘그랬구나’의 ‘-구나’는 엄마 말을 듣고 유아가 사실을 알게 되는 용법에 해당한다. ‘-구나’의 이러한 쓰임은 YB의 만34개월에 나타난 것으로, YB가 감각적 관찰에 의한 앎을 나타내는 ‘-구나’를 만26개월부터 사용한 것에 비하면 사용 시기가 늦다고 할 수 있다.

추론을 통한 새로운 앎에 대한 쓰임도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한 EB에게서만 관찰된다.

(20) 엄마: 우리 차 어디다 세워 놨냐고?

유아: 응.

엄마: 여기 뒤쪽 주차장에다 세워놨어요.

유아: 아빠가 세워놨구나. (EB; 35개월)

(20)에서 아동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가 세워놨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아빠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았다’는 명제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론의 과정을 거쳐 알게 된 것이다.

일상 지식: 차는 아빠가 주차한다.

현재 정보: 지금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았다.

추정 정보: 아빠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았을 것이다.

드물지만, 관찰과 추론 이외에 실험적 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앎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도 ‘-구나’가 관찰된다. 다음의 (21)에서는 아동이 직접 실험적인 수행을 하고 여러 단계의 추론을 거쳐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구나’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21) 그냥 그냥 이거를 푹푹, 그냥 팍팍 하면 되구나(되는구나).

(YB; 34개월)

(21)에서 유아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 실제로 씹어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수행한 다음, 그러한 조작 활동을 통하여 딱딱한 음식은 푹푹 씹어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말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조작과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는 명제는 추론의 과정이 없이 획득한 명제에 비해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므로 좀 더 발달된 인지 능력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지 발달 과정과 관련된 타인지 ‘실험에 의한 앎’ 맥락에서의 ‘-구나’의 사용은 늦은 시기에 관찰된 것을 볼 수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아동 네 명의 종적 자료를 통하여 인지 양태소 ‘-겠-’, ‘-네’, ‘-더-’, ‘-지’, ‘-구나’의 출현 시기와 사용 맥락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태소의 초출 시기를 아동별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피험자별 월령에 따른 초출 형태

대상자 \ 월령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YB	-지 -네	-겠-	-구나	-더-								
TY		-지					-네 -구나					
MK							-지		-네			
EB		-네	-지		-겠-			-구나				

〈표 7〉에 보인 것과 같이 각 양태소의 초출 시기는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네 명의 아동이 양태소를 습득하는 월령은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양태소 출현 시기가 다소 빨랐고, 동일한 성별 안에서도 아동별로 차이를 보였다. 형태별 초출 시기는 아동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이와 같이 네 명의 아동이 양태소를 습득한 월령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양태소를 습득하는 순서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였다. 다양한 형태의 양태소가 관찰된 YB와 EB의 경우 둘 다 ‘-지’, ‘-네’가 ‘-겠-’이나 ‘-더-’에 비해 먼저 출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TY는 어말어미인 ‘-지’, ‘-네’, ‘-구나’만 관찰되고 ‘-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네 아동 가운데 가장 늦은 발달을 보이는 MK는 양태소 가운데 ‘-지’(30개월), ‘-네’(32개월)의 사용만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인지 양태소의 습득 순서는 여러 아동에게서 비슷한 순서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언어 발달 수준에서는 개인차를 보이지만 문법 형태소의 습득 순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은 영어 습득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Brown(1973)에서는 3명의 아동이 발달 속

14) 이러한 발달 수준의 차이는 양태 범주에서만 아니라 전체적 문법 발달 양상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25개월 월령 당시 YB의 언어 자료에서 MLU(Mean Length of Utterances; 형태소 기준)는 5.65였고, 동일한 월령에 해당하는 EB의 언어자료는 2.33의 MLU를 보였다. TY와 MK는 각각 30개월 월령과 32개월 월령에 2.18과 2.03의 MLU를 보였다. EB가 25개월에 ‘-네’ 형태가 출현한 데 반해, TY와 MK가 30개월과 32개월에 ‘-네’의 첫 출현을 보인 것은 이러한 MLU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도는 다르지만 14개의 문법 형태소를 비슷한 순서로 습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¹⁵⁾ De Villiers & De Villiers(1973)에서는 언어 발달 수준이 다른 21명의 아동이 같은 순서의 발달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어말어미 형태의 양태소가 선어말어미 형태의 양태소보다 출현 시기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지’, ‘-네’는 모든 아동에게서 나타났고, ‘-구나’도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의 아동에게서 나타난 데 반해, ‘-겠-’은 두 명, ‘-더-’는 한 명 아동의 자료에서만 출현하였다. 선어말어미 형태의 양태소의 경우도, YB에게서는 ‘-겠-’(25개월)과 ‘-더-’(27개월)의 사용이 관찰되었으나, EB의 경우는 ‘-겠-’(28개월)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선어말어미 형태보다 어말어미 형태가 보다 빨리 습득된다는 사실은 아동이 문법 표지를 습득하는 데 있어 단어 말미에 주목하는 전략을 지닌다는 기존의 주장(Slobin, 1979)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단어나 문장의 초두나 중간보다 말미를 더 현저하게 부각시키는 데는 아동의 주의집중 능력과 기억 등의 이유가 제시되어 왔다(이승복 1997).

어말어미 중에서는 다른 형태들에 비해 ‘-구나’의 출현이 비교적 늦었다. 어말어미 형태 가운데 ‘-구나’에 비해 ‘-네’나 ‘-지’가 먼저 습득되는 데에는 해당 양태소의 의미적 요인과 함께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국립국어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구어 자료에서 ‘-지’가 사용된 빈도는 469회로 나머지 두 형태의 사용 빈도(‘-구나’ 23회, ‘-네’ 85회)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즉, 아동이 ‘-지’라는 형태를 그만큼 자주 접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른 형태에 비해 먼저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양태소 각각의 사용 맥락에 따른 발달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겠-’ 생각 ≫ (의도)

‘-네’ 사물의 존재 및 범주 지각 ≫ 사물의 속성 및 움직임 등 사태 지각

15) -ing, in, on, -s(복수형), 불규칙과거, -s’(소유격), 축약되지 않은 계사, 관사, 규칙과거, -s(3인칭 규칙), 3인칭불규칙, 축약되지 않은 조동사, 축약된 계사, 축약된 조동사의 순서로 습득한다(Brown 1973).

- ‘-더-’ 사물의 기본 속성(크기·형태·색채 등)에 대한 인식 ≫ (움직임에 대한 지각)
- ‘-지’ 기지 진술, 확인 질문 ≫ 주장, 자문
- ‘-구나’ 감각적 관찰에 의한 새로운 앎 ≫ 언어정보·추론·실험에 근거한 새로운 앎

성인 언어에서는 양태소 ‘-겠-’이 생각(추정)의 사용 맥락 외에도 의도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본 연구 결과 35개월 이전의 유아는 ‘-겠-’을 의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의도의 사용 맥락에서는 ‘-르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시점의 지각을 나타내는 양태소 ‘-네’의 경우, ‘사과네’, ‘사과가 있네’에서와 같이 사물의 존재 및 범주 지각의 경우가 사건 지각보다 먼저 나타났다. 과거 지각을 나타내는 ‘-더-’는 본 연구 자료에서 극소수의 사례만 관찰되었는데 대부분이 사물의 크기나, 형태, 색채 등 사물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유아가 현재 시점의 지각을 표현할 때에는 사물의 존재나 범주 지각이 두드러지고 이미 지나간 과거 시점의 지각을 떠올리는 경우에는 사물의 속성 지각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⁶⁾

‘-지’는 ‘이미 앎’을 나타내는 양태소인데, 이러한 양태소 ‘-지’가 유아 발화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유아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지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남의 의견 또는 현 사태와 자신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맥락이나 스스로 정보를 찾는 자문의 맥락에서는, ‘-지’의 발달이 기지 진술이나 확인 질문의 경우에 비해서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구나’에 대한 유아의 사용 맥락은 처음 앎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관련하여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아들은 현장에서 감각적 관찰에 의해 깨달은 사실을 나타내는 용법이 가장 먼저 관찰되었고 추론에 의한 용법은 보다 늦게 관찰

16) 본 연구와 별도로 36개월 이후 시기의 양태 발달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36개월 이후에 ‘-더-’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인지 발달이 현재 지각에서 과거 지각으로, 과거 지각 중에서도 속성 지각에서 행동 지각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되었다. 이러한 '-구나'의 용법도 아동의 인지 발달과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언어 표현과 인지 발달 과정과의 체계적 연계성은 언어 습득 연구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은 초기 언어 습득 과정에서 다양한 양태 형태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양태 범주 습득 문제는 양태 표현이 특히 풍부한 한국어에서 연구할 점이 많은 영역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론과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인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1965.
_____,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신연구』 1, 1986.
- 국립국어원,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 2002.
- 목정수, 「선어말어미의 문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형태 통사적 고찰-{있}, {겠},{더}를 중심으로」, 『언어학』 26, 2000.
- 박경자, 『언어습득연구방법론』, 고려대출판부, 1997.
- 박재연,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9.
- 박재연,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41, 2003.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소영,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7(1), 1996.
- 서정수, 「국어의 서법」, 『국어생활』 7, 1986.
- 이삼형·이필영·임유중, 「어말어미의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 2003.
- 이선웅,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 이승복, 「언어 습득의 책략과 발달과정」, 『새국어생활』, 7, 1997.
- 이인섭, 『아동의 언어발달-한국아동의 단계별 위상』, 개문사, 1986.
- 이효상, 『Tense, Aspect,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CLA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민, 「언어 습득과 화용 규칙」, 『새국어생활』, 7(1), 1997.
-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2008.
-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5.
- _____,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1995.
- _____, 「서법과 양태」,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1998.
- 조숙환, 「언어습득론」, 『새국어생활』, 7, 1997.
- _____, 「국어의 과거시제와 양태소 습득」,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가, 아카넷, 2000.

- Brown, R.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 Choi, S. J., "Early acquisition of epistemic meanings in Korean: a study of sentence-ending suffixes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three children," *First Language* 11. 1991.
- De Villiers, J. G., & De Villiers, P. A.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child speech,"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 1973.
- Lee, C. S., "Development of mood and modality in Korean," Workshop on Speech Acts at First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on Cognitive Science, SUNY, Buffalo. 1994.
- Lee, H. S.,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CLA doctoral dissertation. 1991.
- Slobin, D. I.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acquisition of grammar," In C. A. Ferguson & D. I. Slobin(Eds.),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Holt. 1973.
- _____, *Psycholinguistics*(2nd ed.), Glenview, III: Scott. 1979.

【Abstracts】

Young Children's Acquisition of Epistemic Modality in Korean: A Longitudinal Approach.

Chang, Kyung-hee · Kim, Tae-kyung · Park, Saet-byeol

The use of modality markers is concerned with cognitive processes such as knowing and thinking. This study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sequence of Korean epistemic modality markers and the contextual properties of them in the utterances of young children. 4 children aged 2 years were observed in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for one year.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children may master the modality markers at different ages, the order of their acquisition is very similar. In general, children learn modality markers in such order; ‘-지’, ‘-네’ > ‘-구나’ > ‘-겠-’ > ‘-더-’. The order of morpheme acquisition seems to depend on syntactic and semantic complexity as well as frequency of exposure. And learning modality has stages from a simple expression in certain contexts to more complex expression in the contexts including perception of an event or inference.

keywords: first language acquisition, epistemic modality, language development, longitudinal approach, morpheme acquisition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